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위해 달린다

전북개발공사, 내년 32억원 현금 증자 확정 도내 4개 군지역 농어촌 임대아파트 건립 순항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북 도로로부터 2019년도에 32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출자 받아 '장수, 임실, 진안, 무주' 등 4개 군지역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삼라농정(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농업, 사람찾는농촌) 구현 전략의 일환인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그간 368여억원을 출자했으며 2019년도에도 추가로 32여억원을 출자하여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총 400여억원의 출자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도에 32여억원을 추가로 출자받게 되면 공사 자본금은 2018년 12월 현재 1,342여억원에서 1,374여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 공사는 '장수, 임실, 진안, 무주' 4개 군지역에 860여억원을 투자하여 375세대 규모의 농어촌 임대아파트를 건립중이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전북도의 출자금 지원으로 4개 군지역에 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었다"며,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4위에 불과하지만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2026년까지 19개단지 8,000여 세대를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결핵퇴치 모금운동 '앞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0일 결핵 퇴치, 예방 홍보 재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썰 모금 운동에 3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썰 모금 운동은 대한결핵협회가 1953년 창립되면서 결핵퇴치 재원마련을 위해 법국민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결핵 예방, 관리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썰은 남북 평화분위기에 맞춰 'Be a Friend -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야기'를 주제로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귀여운 그림체로 제작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썰 모금이 결핵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올 겨울 도민과 고객들에게 따뜻함이 깃들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크리스마스 썰 모금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총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재원 42억원 중 전북 지역 모금액 목표는 1억 5천 만원이다.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발견,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군 검사,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홍보사업 등 결핵퇴치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루테 봉사단이 20일 다운아동 지역센터에 방문, 장애 아동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추억'

롯데백화점 전주점, 다운아동지역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루테 봉사단은 20일 덕진구 소재의 다운아동 지역센터(장애아동시설)에 방문, 장애 아동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등장한 산타 분장의 봉사단원들이 아동지역센터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장갑, 과자세트)을

전달하고 따뜻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도 함께 만들어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했다. 롯데백화점 사루테 봉사단은 지난 14일에도 '참사랑 낙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의 배식봉사에 참여하는 등 매월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조환섭 점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사업자 우대 전용 신상품 '가맹점 통장'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가맹점 매출대금 결제채와,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우대전용 상품인 'JB가맹점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금의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JB가맹점통장'의 가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가입채널을 모바일Web,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는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 상품은 제로페이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당·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단, 일부 기기 제외),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외화 당·타발 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70% 우대 등의 기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과금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실적 등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추가 충족 시 타행 CD/ATM현금인출수수료 면제(단, 일부 기기 제외), 당행 CD/ATM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입출금 내역통지서비스(SMS) 수수료 면제 등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전북은행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우대 상품인 'JB가맹점통장'을 매출대금 결제채와로 이용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자 '김기홍' 선정

JB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후보자로 김기홍 現 JB자산운용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JB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9일 최종 후보군에 대해 PT발표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김기홍 대표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 7일, JB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Short-list로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와 외부 자문기관 추천 인사, 신창무 PCBank 은행장 등 총 3명을 선정했으며 후보자를 고사한 후보를 제외하고 19일 오후 PT발표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PT발표와 심층면접은 후보자

의 JB금융그룹의 성장 비전, 전문성, 리더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후보자의 역량에 대해 평가했고 김기홍 대표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JB금융지주 임추위 관계자는 "김기홍 후보자가 20여년 이상 금융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의 전문적인 식견, 리더십, 소통능력도 탁월하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 극대화 등 JB금융그룹을 최고의 소매전문 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홍 내정자는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 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생활쓰레기 수거 통한 어촌마을 활성화 기대

농어촌공 전북, 군산 무녀2구 '바다가꿈 환경개선 운동' 펼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9일 군산 옥도면 무녀2구 마을에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4개 지사(동진, 군산, 익산, 무진장)의 직원 50여명과 마을 주민 20여명이 함께 '바다가꿈 환경개선 운동'을 했다

고 20일 밝혔다. 무녀2구 마을 해안가에서 펼친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어촌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가꾸기 활동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는 해안가, 항, 포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와 마을

폐자재 3톤여가량을 2시간에 걸쳐 수거하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역주민,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어촌 환경 개선 운동에 참여, 마을을 정비하고 이미지 개선과 증가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본부장 박종만, 센터장 이석홍)는 "전북 어촌마을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효사랑요양병원과 제휴카드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9일 본점9층 회의실에서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가족사랑요양병원(이하 효사랑요양병원)과 임직원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두원진 전북은행부행장,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 김정연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 박진만 가족사랑요양병원이사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효사랑요양병원은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는 '효사랑요양병원 복지카드'를 출시하여 병원 임직원,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과 함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효사랑요양병원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제휴상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을 제공하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QR코드
- 편의점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